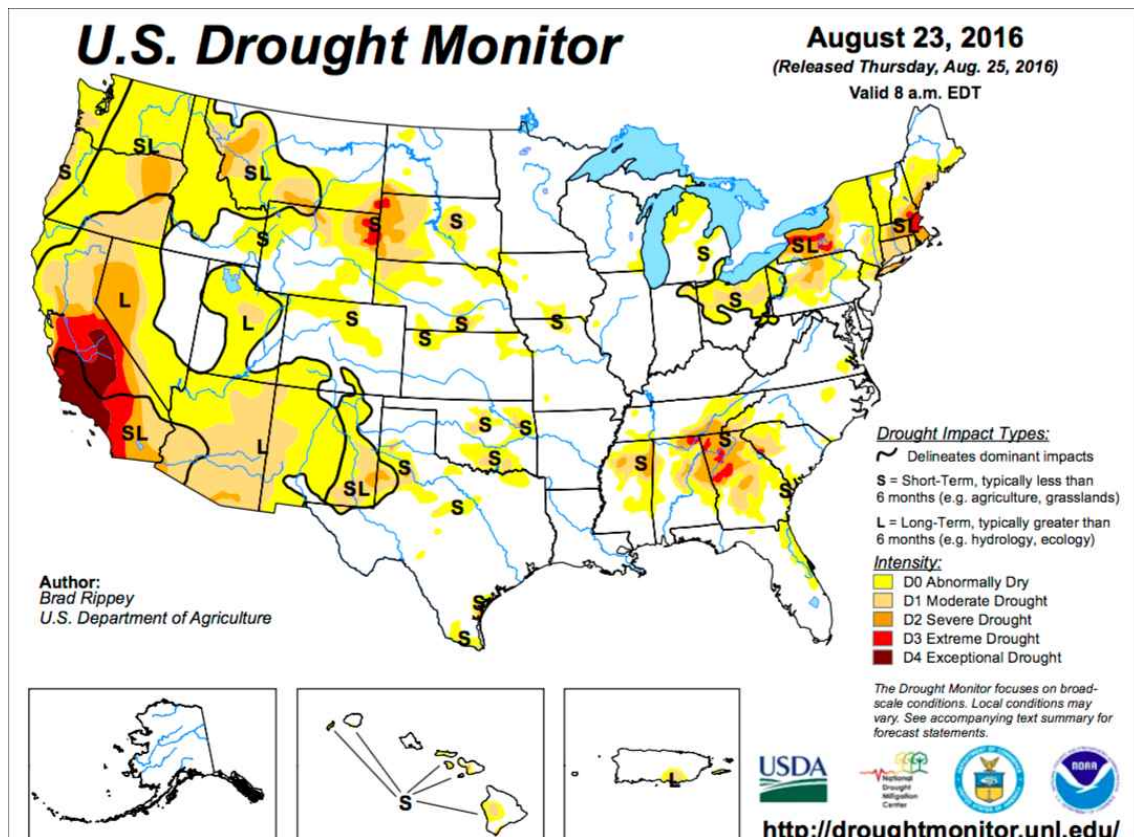


8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5)

□ 미국 기후 현황(8/21~8/27)

남동부 일대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대서양 연안 중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다.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서부에서도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8월 27일까지 서부에 위치한 6개의 주에서는 12개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고, 20,000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이 산불피해를 입었다. 남서부에서는 주 후반, 계절적인 영향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바뀌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다. 남부 고원지대에서부터 동부 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북부 고원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중서부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 이 비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남서부로 옮겨갔다.



□ 농업 현황 요약(8/22~8/28)

미시시피강 일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평년에 비해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미주리 북서부에서부터 아이오와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동부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캘리포니아, 메인, 오하이오, 오레곤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4°F 이상 높았다. 로키산맥 일대에서부터 대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낮았다.

■ 옥수수

8월 28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92%에 이르는 지역이 dough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5%p 앞선 수치이다. 한편, 같은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6%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8%p 앞서는 수치이다. 응답자의 75%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7%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8월 23일 기준, 꼬투리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은 94%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높은 수치다.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는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이 각각 38%, 2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높은 수준이다.

■ 면화

8월 28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9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2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면화송이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텍사스의 경우, 해안지역의 수확작업은 비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쌀

8월 28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낮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2%p 증가했고, 루이지애나에서도 10%p에 가까운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0%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6%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21~8/27)

■ 유럽: 동부 일대에서는 주 초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와 서부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등의 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겨울작물의 파종작업도 이루어졌다. 스페인에서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2~20mm 내외의 비가 내려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1~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농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동부에서는 10~6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비가 그치면서 수확작업이 재개되었다.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 등의 생육상태는 지난해보다 좋은 편이다.

■ 구소련(서부):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우량은 2~60mm 내외였고 곳에 따라 천동변개가 치기도 했지만 침수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폴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8°C 정도 높았고,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확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겨울작물의 파종작업도 진행되었다.

■ 동아시아: Heilongjiang, 내몽고 및 Jilin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그 밖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보다 남부에서는 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부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에서는 세 개의 태풍이 연달아 찾아오면서 많은 비를 내렸다. Honshu의 경우 지난 2주간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Hokkaido에서는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빅토리아 및 남호주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다. 서호주와 뉴 사우스 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중부와 북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Buenos Aires에서는 기온이 10~20°C 초반 수준을 유지했고, La Pampa 및 북부지역에서는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남서부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25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0%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8%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밀의 파종률은 99%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Parana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Mato Grosso 남동부에서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 비로 인해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기 작물의 파종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낮 최고기온은 30°C 이상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 Parana 남부에서부터 Rio Grande do Sul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5°C 미만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곳은 없었다.